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의료정보 유출” vs “비용 절감”

(의료계)

(보험업계)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에도 제자리 환자 정보교류, 공보협체계 붕괴 우려 소비자 편의 위한 보험청구 전산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왼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유튜브 화면 캡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도 제자리 걸음이다.

◆보험사의 개인정보 전산화 우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2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15~25% 낮고 보장률도 60%대 초반”이라며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80% 가까이 되지만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소액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었지만 소액청구 간소화는 영수증만 전송하는 등 다른 간소화 방법

이 존재한다. 실손의료보험 지급률 향상을 위한 핵심 규제 방법은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민간보험이 비급여진료비 영역만 보장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보험사에 개인 진료내용 전산 자료를 송부하겠다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각각 대표 발의된 상황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이 전문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문중계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하다.

이날 토론회자로 나선 정형준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을 계약관계로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한국 의료체계가 공보협인 전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방식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의 환자 정보

교류는 공적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필요한 것은 실손보험청구 편의성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장영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도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민감정보도 가명처리를 하면 제한 없이 기업의 영리적인 기술 개발 등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등은 정보 주체에 대한 프로파일링 처리, 나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편한 보험청구 절차… 소비자 권리 제한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토론회를 통해 “실손보험은 1999년 출시 이후에 계속 유지되어 왔고, 22년 동안 되어오던 청구를 전산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실손보험청구 전산화를 정부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 따라 심평원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진행한 최

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8.6%에 달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 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도 나타났다.

이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영업은 고객의 동의에서 출발한다.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법안에는 업무 외 사용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의 통제장치와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부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규모는 매년 1억6000건에 달한다. 보험사에 제출되는 종이 서류도 4억 장이 넘는다”며 “이를 처리하는 원무과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고충과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협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metroseoul.co.kr

“금융인프라 개방… 모든 직원 전문가 돼야” 은행 부실채권비율 0.62%… ‘역대 최저’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창립 35주년 기념사 “건강한 규율체계 유지 관심 가져달라”

“금융결제 인프라(KFTC-net)와 인증, 데이터 업무뿐만 아니라 맨파워와 로열티, 규율체계 면에서도 일류가 되겠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2일 창립 제 35주년 기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하반기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마이페이먼트 등 금융인프라 개방으로 금융시장은 종합금융플랫폼, 데이터 활용까지 중심으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결제와 정보중계, 인증, 데이터, IT부문을서 한발 앞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직원 한명, 한명이 금융결제서비스의 최고 전문가가 돼야 한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제프리 페퍼 교수는 ‘기술이나 가격 등은 경쟁사가 모방할 수 있으나 인적 자원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장기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라고 했다”며 “직원 개인의 깊이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금융결제원이라는 일터에서 긍정적인 의미와 성취감을 찾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은 일방향의 충성이나 헌신이 아니라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잘 융합될 때 가능하다”며 “금융결제원의 비전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각자 수행하는 역할의 주인으로서 정성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일하는 규율체계에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자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영환경이 혁신과 창조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 원칙과 기준이 경시되는 조직문화로 이어진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건강한 규율체계 유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분기 말 대비 0.02%p 하락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2%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역대 최저치다.

부실채권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1.0%) 감소했다. 기업여신이 11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이 각각 1조7000억원, 1000억원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7.3%로 전분기 말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월 말 대비로는 26.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줄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전분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1조8000억원이며,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6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일반적으로 4분기에 부실채권 정리규모가 증가했다가 1분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매각(대손상각 8000억원, 매각 4000억원)이 1조2000억원 규모며, 담보 처분을 통한 여신회수와 여신 정상화가 각각 6000억원, 4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銀, 英 핀테크업체와 해외송금 서비스

해외은행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은 영국 글로벌 핀테크 업체인 와이즈사와 제휴해 ‘신한 와이즈(Wise) 해외송금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 와이즈 해외송금서비스’는 송금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신한솔(SOL) 해외송금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신료, 해외중계수수료, 해외은행 수수료가 없다. 미국으로 미국달러(USD)를 송금할 경우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수수료는 2.13달러로 기존 송금보다 경제적인 해외송금을 할 수 있

/안상미 기자

신한카드

오픈뱅킹 10만 고객 돌파

신한카드는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에 발맞춰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인지 2일 만에 가입고객 10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카드사 오픈뱅킹 도입을 맞아 그 동안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해 개시와 계좌간 송금 서비스를 오픈했다. 모든 카드사의 청구대금 결제일을 미리 알려주는 카드 결제일 알림 서비스와 결제계좌 잔액 보충 서비스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영석 기자 ysl@

NH농협금융, 한 달간 탄소중립 캠페인

‘ESG 애쓰자’ 캠페인

NH농협금융이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이달 한 달간 ‘ESG 애쓰자’ 캠페인으로 탄소저감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농협금융은 올해 초부터 임직원의 생활 속 ESG 친환경 실천 활동인 ‘ESG 애쓰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6월에는 세계환경의 날에 걸맞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캠페인을 실시한다. 기존 ‘애쓰자 데이’를 ‘애쓰자 워크’로 변경해 집중추진 기간을 확대한다. 직장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참여 가능한 캠페인을 소개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활동 범위를 넓힌

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 및 친환경 시대에 맞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임직원 동참을 유도한다. 임직원들이 개별 가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캠페인 가입 방법과 활동 내용을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저탄소 환경정책을 위한 활동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금융혜택을 반영해 고객들의 참여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